

## 국내 태양열발전시스템 설치를 위한 법선면 직달일사량 분석

조 덕기<sup>1)</sup>, 강 용혁<sup>2)</sup>

### Evaluation of Direct Normal Radiation Resources for Construction of Solar Thermal Power System in Korea

Dokki Jo, Yongheack Kang

**Key words :** Direct Normal Radiation(법선면 직달일사량), Measurement Network(측정네트워크)

**Abstract :** Since the direct normal insolation is a main factor for designing any solar thermal power system, it is necessary to evaluate its characteristics all over the country.

We have begun collecting direct normal insolation data since December 1990 at 16 different locations and considerable effort has been made for constructing a standard value from measured data at each station. KIER(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s new data will be extensively used by solar thermal concentrating system users or designers as well as by research institutes.

From the results, we can conclude that

- 1) Yearly mean  $5.41 \text{ kWh/m}^2/\text{day}$  of the direct normal insolation was evaluated for clear day all over 16 areas in Korea.
- 2) Clear day's direct normal insolation of spring and summer were  $5.54 \text{ kWh/m}^2/\text{day}$  and  $5.86 \text{ kWh/m}^2/\text{day}$ , and for fall and winter their values were  $5.32 \text{ kWh/m}^2/\text{day}$  and  $4.92 \text{ kWh/m}^2/\text{day}$  respectively. So, spring and summer were higher, and fall and winter were lower than the yearly mean value.

### 1. 서 론

대기권내에 입사하는 태양 빛은 대기를 구성하는 분자에 따라 흡수 및 산란되어 감퇴해서 지구 표면 위에 도달되며, 이 중 지표면상에 떨어질 때까지 입사방향이 직각인 면으로 입사하여 그 방향이 변하지 않고 직접 도달되는 성분을 법선면 직달일사량이라고 한다.

법선면 직달일사량은 태양에너지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넓은 면적에 입사하는 태양광선을 한곳으로 모아 고온에너지를 얻도록 설계되는 고온 집열시스템, 즉 Dish형 태양열집광시스템, 태양로와 같은 기기를 이용한 태양열 발전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는 법선면 직달일사량의 측정과 평가는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동안 평판형 집열기나 온수기, 건조기, 종류기, 그런하우스 등과 같이 낮은 온도 하에서 동작하는 태양열시스템이나 태양전지 등과 같은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할 때는 수평면 전일사량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요구되어 이에 대한 국내 수평면 전일사량 조사가 연구되어 온 반면에, 최

근에는 넓은 면적에 입사되는 직달일사량을 한곳에 모아 중고온을 사용하도록 설계된 태양열집광기와 이를 응용한 태양열 발전시스템 설계나 효율을 예측하기 위하여 직달일사량에 대한 자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관련 장비를 확보하고 1990년 말부터 우리나라 주요지역에 법선면 직달일사량 측정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집광식 태양열시스템 및 관련 기기 설계를 위한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 수집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측정기간 동안에 얻은 각 지역의 법선면 직달일사량 자료를 월별 및 1일 평균 혹은 특정한 기간별로 정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지역간의 법선면 직달일사량 자원 현황과 자원환경 분석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법선면 직달일사량 자원이 풍부한

- 
-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연구부  
E-mail : dokki.jo@kier.re.kr  
Tel : (042)860-3561 Fax : (042)860-3739
  - 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연구부  
E-mail : yhkang@kier.re.kr  
Tel : (042)860-3518 Fax : (042)860-3739

지점에 대한 발굴조사와 자원부존량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태양열발전단지의 건설을 위한 최적지를 선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2. 측정네트워크의 구성 및 자료처리

측정지 선정작업에 고려된 사항들은 우선, 측정지 상호간의 거리는 가능한 균등하게 유지하여 전국을 위도와 경도로 등분하여 측정지 분포를 고르게 하였으며, 가능한 내륙 및 해안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일사량 변동형태를 연구할 수 있도록 측정지 선정에 반영하였다. 또한 측정지는 시스템의 관리유지와 데이터수집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상청의 협조를 얻어 해당지역 기상대와 당 연구원을 측정지로 하였으며, 사업추진 경비를 고려하여 측정지를 표 1에서와 같이 16개소로 한정하였다.

측정장치는 미국 Eppley사가 제작한 직달일사계(모델 NIP)와 태양자동추적장치(모델 SMT), 그리고 미국 Vaisala사가 제작한 데이터수집장치(모델 570 A)를 사용하였다.

그 외에 측정네트워크에 설치된 개개의 시스템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전송매체인 기존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통제소(key station)에서 수신할 수 있고, 또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형태로 결합시켜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 통신망을 구성하였으며, 또한 시스템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 내에서 조달하고, 측정작업과 이에 따른 데이터의 자체 저장처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측정의 자동화를 시도하였다.

표 1. 전국 법선면 직달일사량 측정지 명세

| 지역명 | 지역번호 | 위도      | 경도       | 고도    |
|-----|------|---------|----------|-------|
| 춘천  | 101  | 37° 54' | 127° 44' | 74.0m |
| 강릉  | 105  | 37 45   | 128 54   | 26.0  |
| 서울  | 108  | 37 34   | 126 58   | 85.5  |
| 원주  | 114  | 37 20   | 127 57   | 149.8 |
| 서산  | 129  | 36 46   | 126 28   | 19.7  |
| 청주  | 131  | 36 38   | 127 26   | 59.0  |
| 대전  | 133  | 36 22   | 127 22   | 67.2  |
| 포항  | 138  | 36 02   | 129 24   | 2.5   |
| 대구  | 143  | 35 53   | 128 37   | 57.8  |
| 전주  | 146  | 35 49   | 127 09   | 51.2  |
| 광주  | 156  | 35 10   | 126 53   | 70.3  |
| 부산  | 159  | 35 06   | 129 02   | 69.2  |
| 목포  | 165  | 34 49   | 126 22   | 36.5  |
| 제주  | 184  | 33 31   | 126 32   | 22.0  |
| 진주  | 192  | 35 12   | 128 06   | 21.5  |
| 영주  | 272  | 36 52   | 128 31   | 209.5 |

## 3. 분석결과

### 3.1 분포형태

우리나라 주요 16개 지역에서 '90. 12 ~ 2003.

12 사이에 1일 평균 운량값이 0 또는 1 이하인 청명(清明)한 날에 매 시간마다 측정된 실측자료를 토대로 전 기간에 걸친 법선면 직달일사량, 즉 태양과 법선방향의 법선면 직달일사량을 분석하여 보면, 표 2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전 지역에서 청명한 날 하루에 연평균  $5.41 \text{ kWh/m}^2$  정도의 직달일사 에너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 분석하여 보면, 표 2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연중(年中) 여름철의 법선면 직달일사량 조건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겨울철은 연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계절별 법선면 직달일사량의 변동추이 (청명일 기준)  
(단위 :  $\text{kWh/m}^2/\text{day}$ )

| 계절 구분            | 봄    | 여름   | 가을   | 겨울   | 연평균(A) |
|------------------|------|------|------|------|--------|
| 법선면 직달 일사량(DIRN) | 5.54 | 5.86 | 5.32 | 4.92 | 5.41   |
| DN/A (%)         | 102  | 108  | 98   | 91   | 100    |
| 수평면 전 일사량(HOR)   | 5.91 | 6.66 | 4.12 | 3.11 | 4.95   |
| HOR/A (%)        | 119  | 135  | 83   | 63   | 100    |
| DIRN/HOR (%)     | 94   | 88   | 129  | 158  | 109    |

연 평균치에 대한 각 계절별 법선면 직달일사량(DN)의 비율은 봄철(3~5월)과 여름철(6~8월)이 각각 2%, 8% 높았고, 가을철(9~11월)과 겨울철(12~2월)은 각각 연 평균치에 비해 2%, 9%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동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측정된 수평면 전일사량(HO)의 계절별 변동추이 역시 법선면 직달일사량과 유사한 분포경향을 보였다. 또한 수평면 전일사량에 대한 법선면 직달일사량의 비, DIRN /HOR은 연중 겨울철이 158%로 가장 높게, 여름철이 8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월별로는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여름철인 8월에 법선면 직달일사량이 가장 많은 달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게 나타난 달은 겨울철인 12월로 나타났다. 또한 수평면 전일사량에 대한 법선면 직달일사량의 비, DIRN /HOR은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겨울철인 12월에 176%으로 가장 높은 달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달은 초 여름철인 6월에 81%로 나타났다.

### 3.2 지역별 분포형태

우리나라 주요 16개 지역에서 '90. 12 ~ 2004. 12 사이에 청명한 날 측정된 지역별 법선면 직달일사량의 연 평균치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그리고 같은 기간동안 실측된 자료의 평균치를 가지고 전산시뮬레이션 기법으로 그린 그림 4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하루에  $5.6 \text{ kWh/m}^2$  이상의 법선면 직달일사량을 받는 비교적 큰 지역은 광주-진주를 잇는 남원분지 및 진주분지 일대와 대전-청주를 잇는 대전분지, 그리고 역시 분지지대인 춘천-원주-영주-포항을 잇는 일대임을 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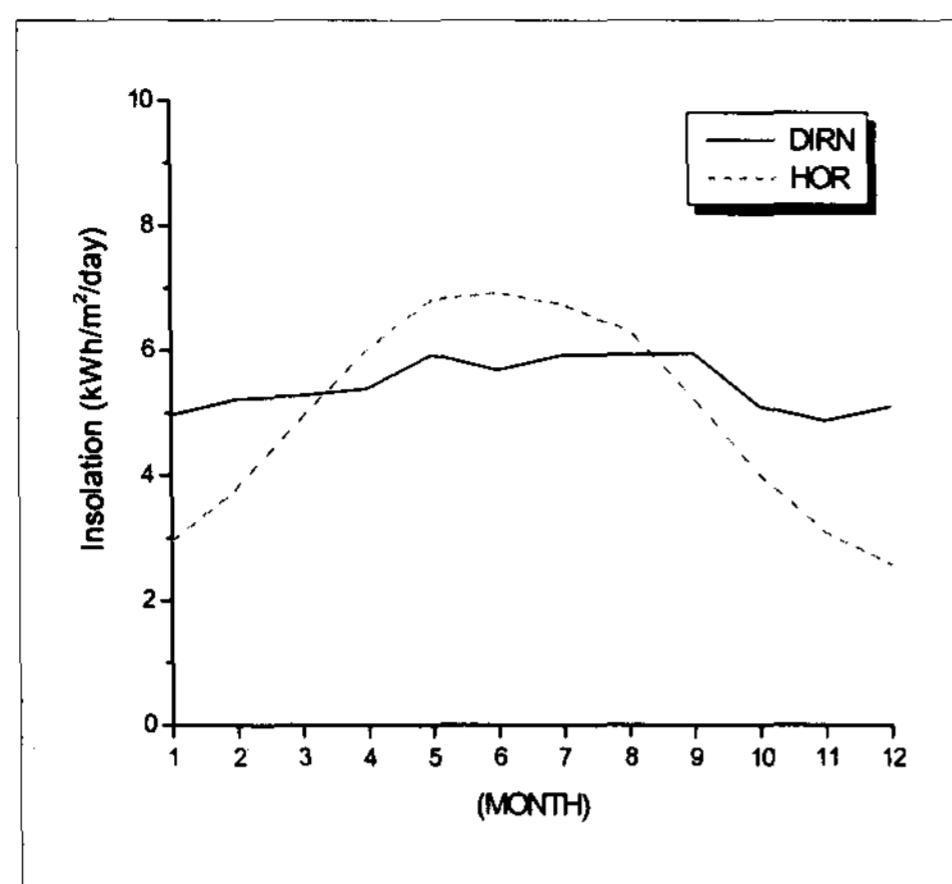


그림 1. 우리나라 주요 16개 지역 평균 법선면  
직달일사량 및 수평면 전일사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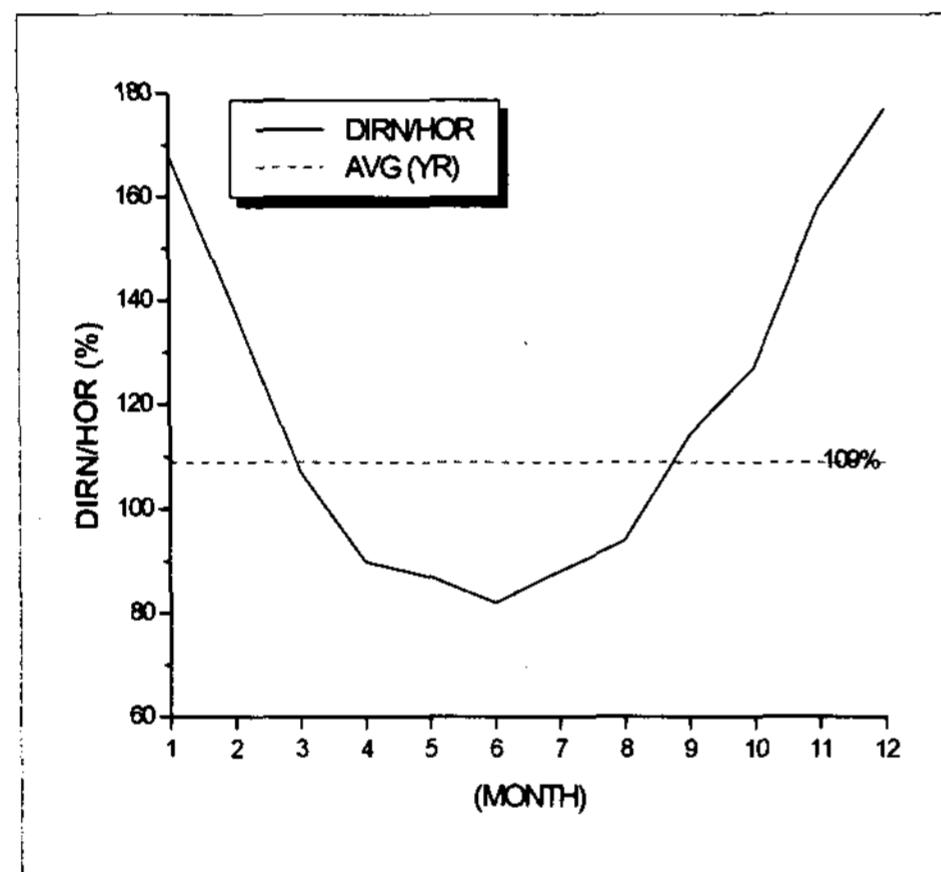


그림 2. 우리나라 주요 16개 지역 평균 월별 수평면 전  
일사량에 대한 법선면 직달일사량의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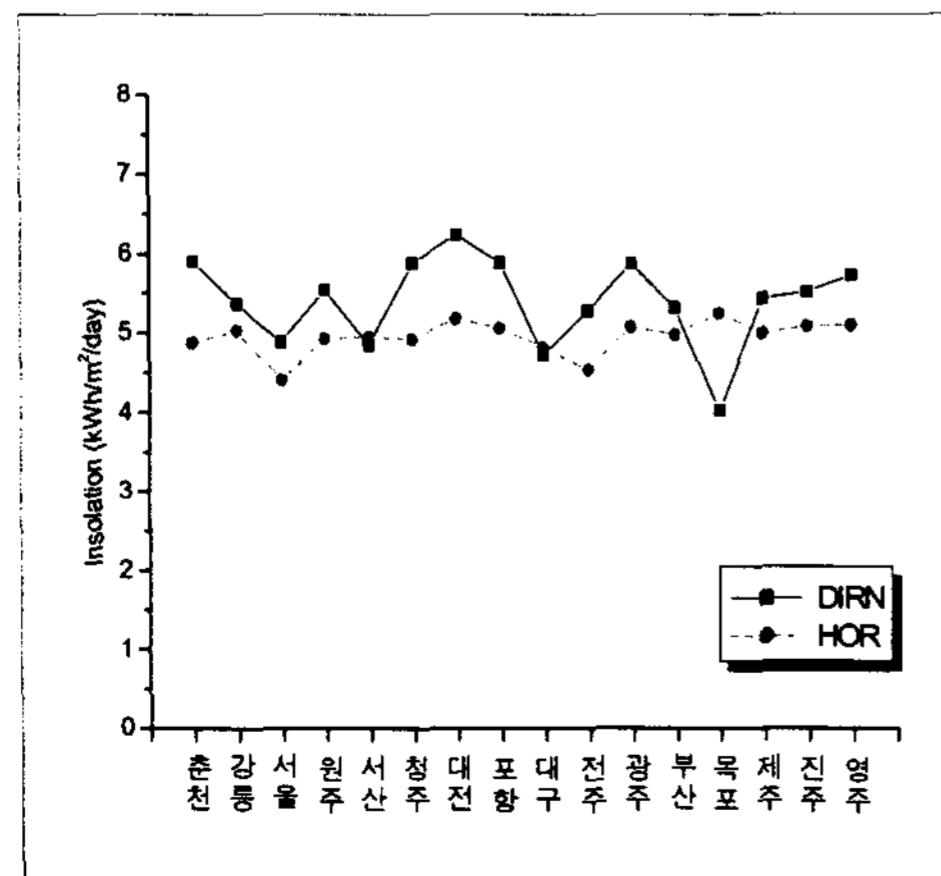


그림 3. 우리나라 주요 지역별에 따른 법선면 직달  
일사량 및 수평면 전일사량의 연평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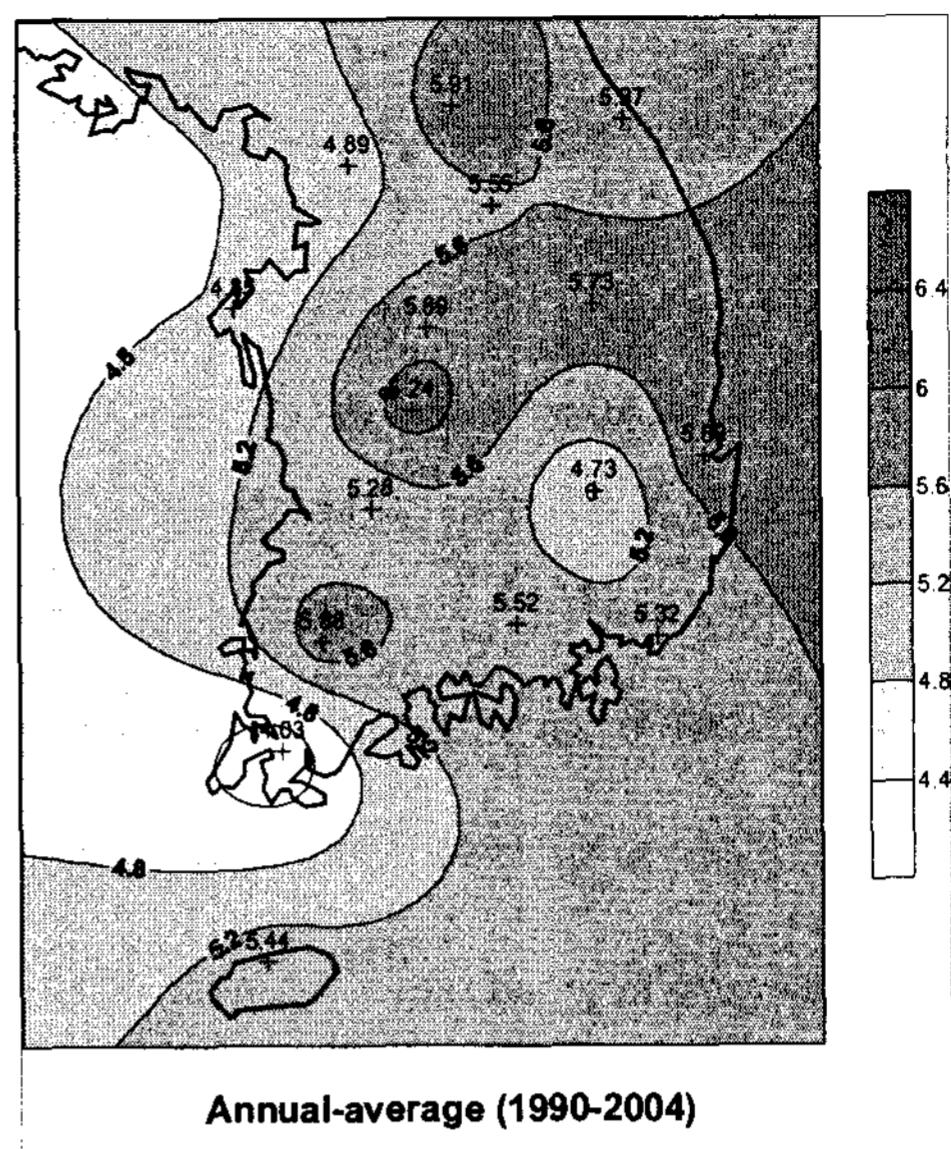


그림 4. 전국 연평균 1일 법선면 직달일사량 자원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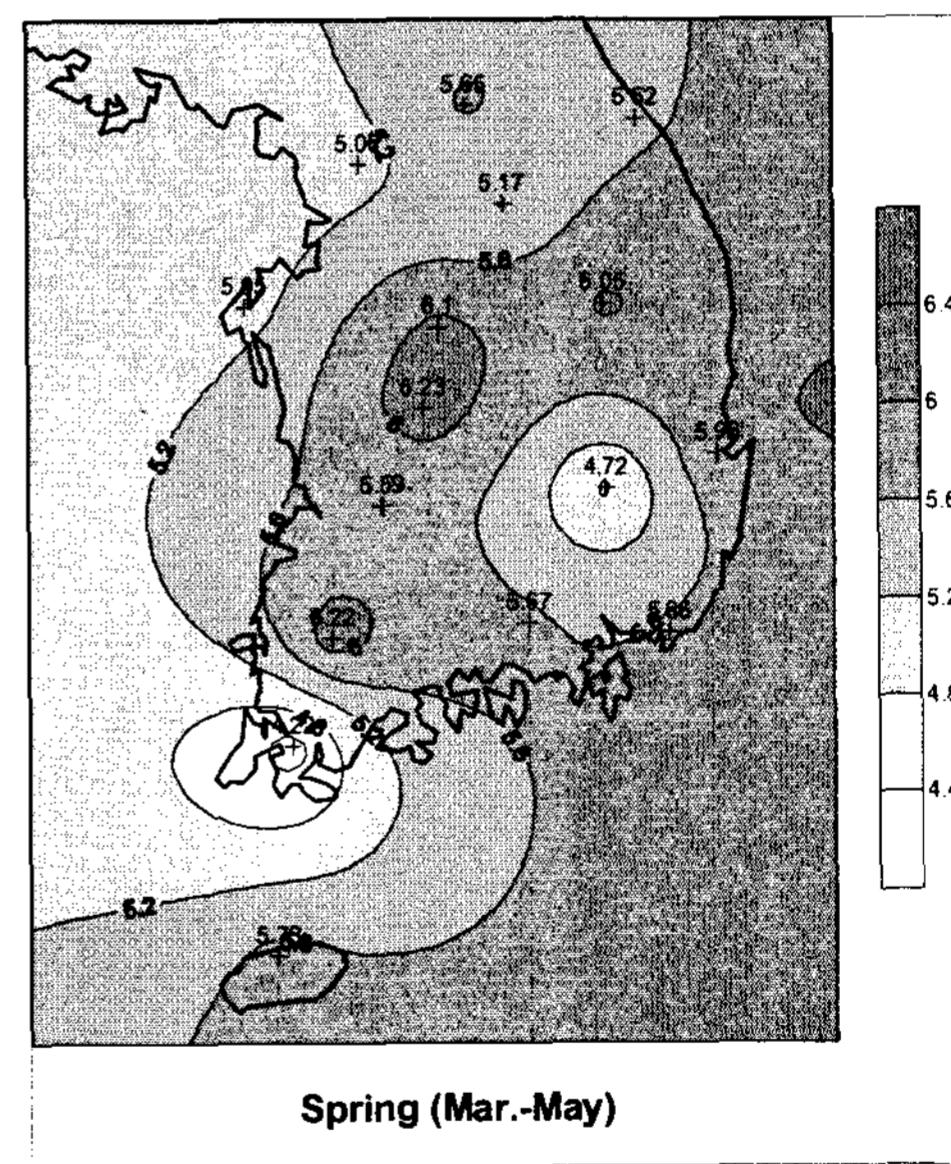


그림 5. 전국 봄철 일평균 법선면 직달일사량자원 분포도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대전지역은 하루에  $6.0 \text{ kWh/m}^2$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선면 직달일사량이 비교적 낮은 하루에  $4.4 \sim 4.8 \text{ kWh/m}^2$ 인 지역은 수도권지역인 서울과 대도시지역인 대구, 해안지역인 서산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4.0 \text{ kWh/m}^2$  정도로 매우 작은 지역은 역시 해안지역인 목포로 나타났다.

계절별로 분포특징을 살펴보면, 그림 5~그림 8에서와 같이 봄철의 일사조건은 광주-대전-영주지역 일원을 잇는 분지지대에서 높게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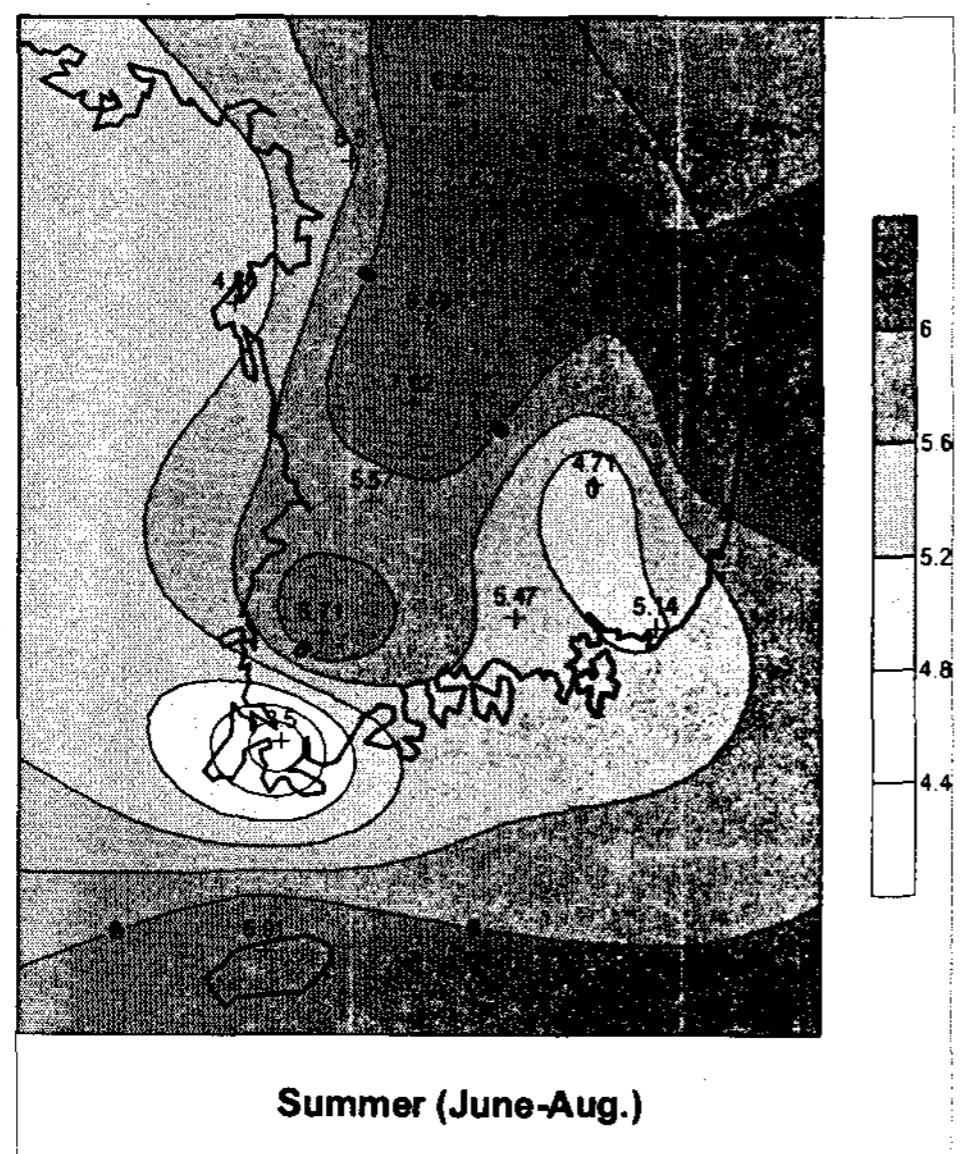


그림 6. 전국 여름철 일평균 법선면 직달일사량자원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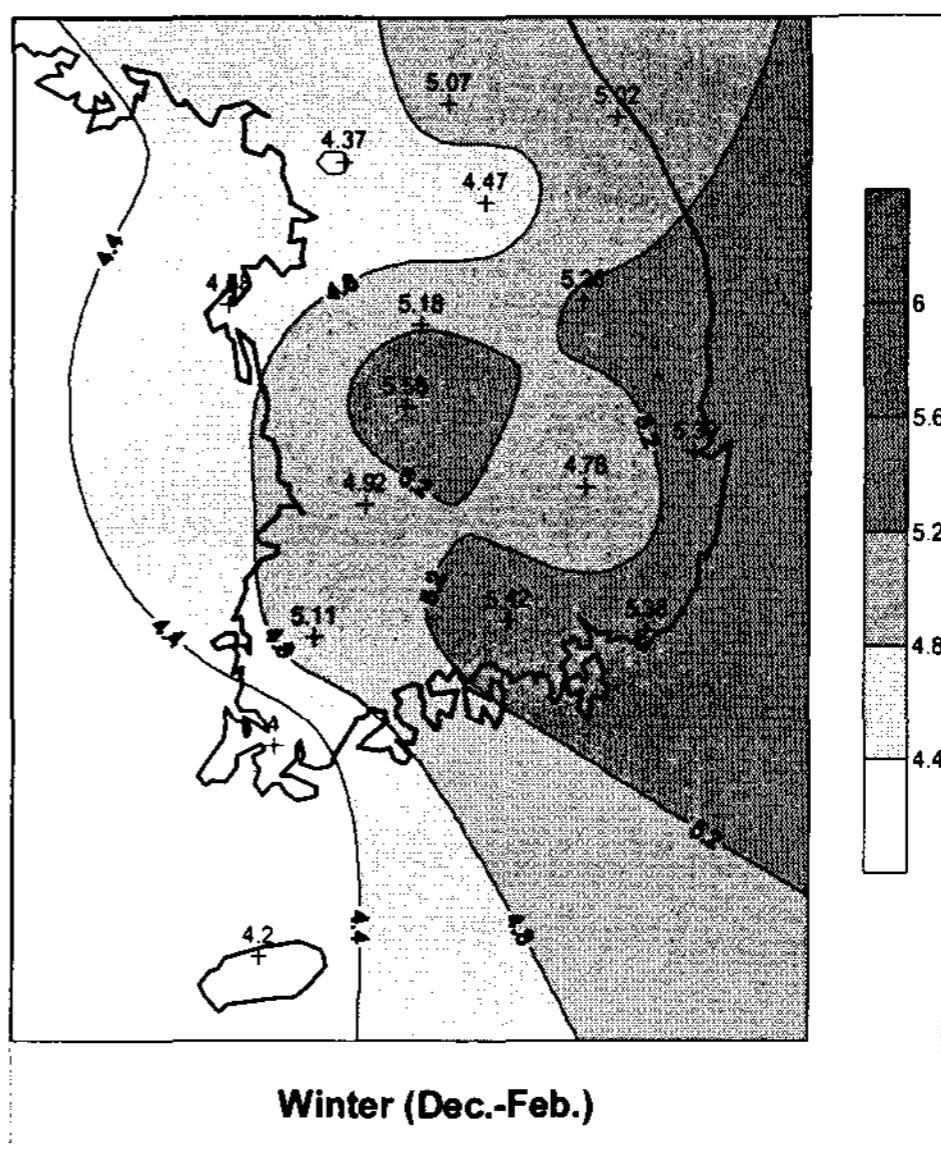


그림 8. 전국 겨울철 일평균 법선면 직달일사량 자원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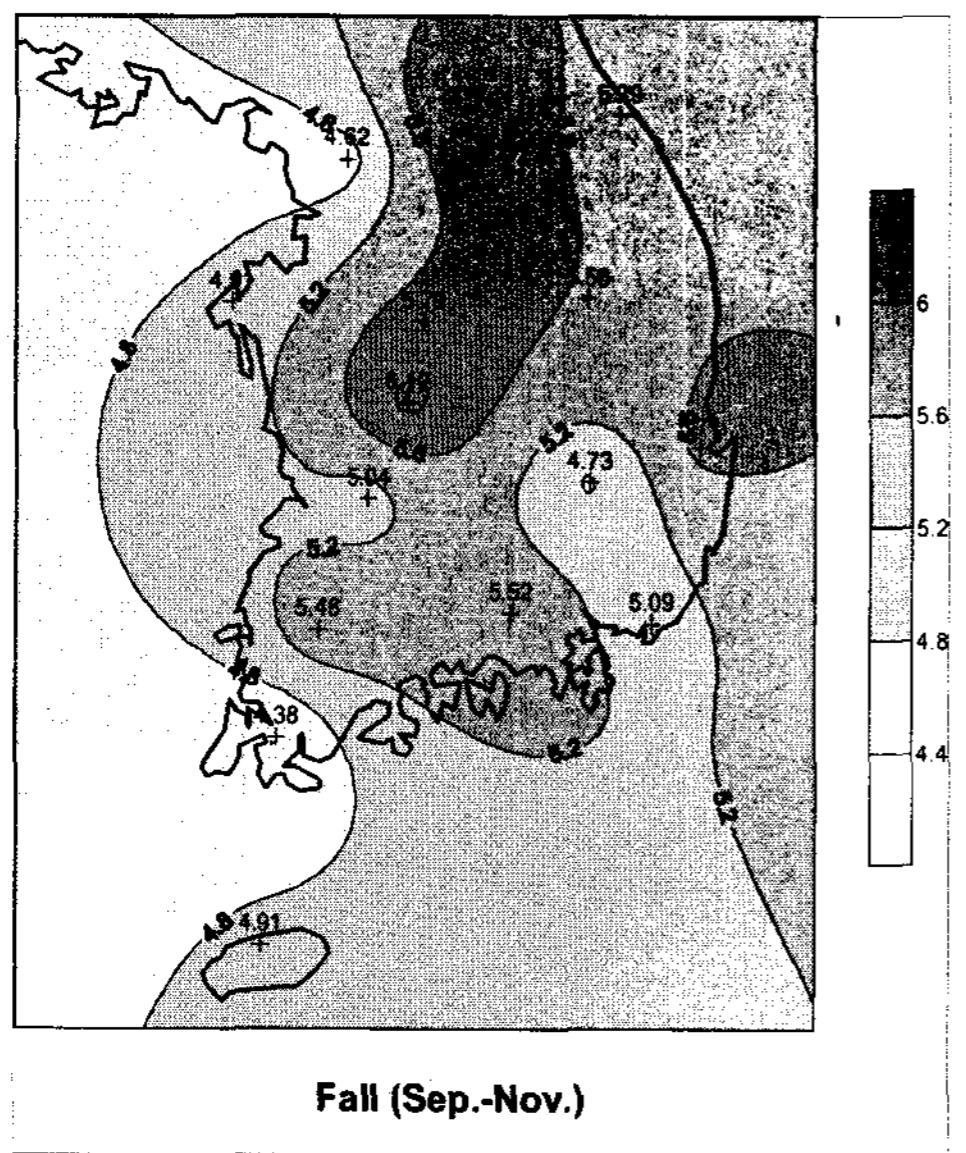


그림 7. 전국 가을철 일평균 법선면 직달일사량자원 분포도

고 있는 반면에, 대도시지역인 서울, 대구와 해안지역인 목포 일원은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여름철은 광주와 대전-청주-원주-춘천을 잇는 중부이북지방과 제주지방 일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대도시지역인 서울과 부산, 대구, 그리고 해안지역인 서산, 목포지방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가을철은 전주-대전-성주-원주-춘천을 잇는 분지지대 일원에서 비교적 타 기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대도시지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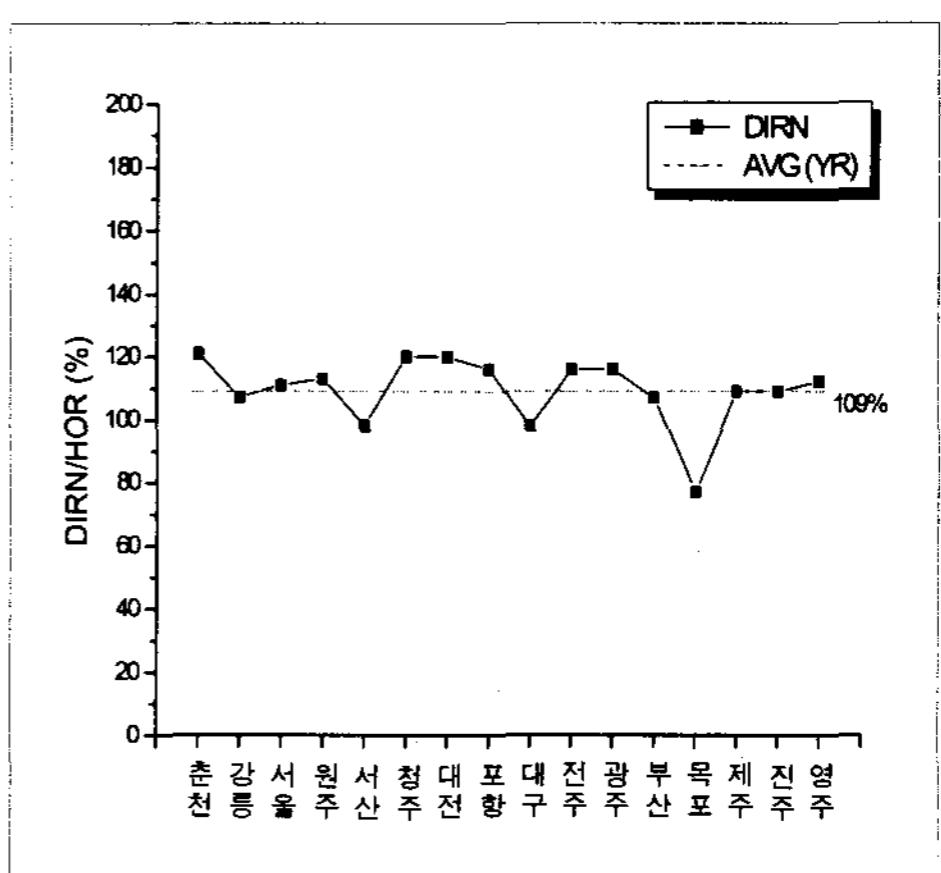


그림 9. 우리나라 주요 지역별 연평균 수평면 전일사량에 대한 법선면 직달일사량의 비

서울, 대구, 부산과 해안지역인 서산, 목포, 제주지방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겨울철은 대전 및 영주분지와 진주-부산-포항을 잇는 일원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서산-서울-원주를 잇는 일원과 목포-제주를 잇는 일원은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이와 같이 이들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원인은 특히, 겨울철 도심난방으로 인한 스모그 현상과 겨울철의 계절풍이 이들 지역의 법선면 직달일사 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또한 대부분의 서해안지역은 중부 내륙지방과 동해안지역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동안 수평면 전일사량에 대한 법선면 직달일사량의 비, DN/HO는 그림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도시지역인 부산, 대구와 강릉,

서산, 목포, 제주와 같은 해안지역에서는 전지역의 연 평균치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서울, 춘천, 원주, 영주, 청주, 유성, 전주, 광주 등 수도권지역과 중북부 산간지방, 그리고 일부 분지지대 일대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내어 대체로 해안지방보다는 내륙지방에서 법선면 직달일사 조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4. 결 론

우리나라 주요 16개 지역에서 '90. 12 ~ 2003. 12 사이에 1일 평균 운량값이 0 또는 0.1 이하인 청명(清明)한 날에 매 시간마다 측정된 실측자료를 토대로 전국 법선면 직달일사량에 대한 실측 평가 사업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1) 전 기간에 걸친 법선면 직달일사량을 분석한 결과, 전 지역에서 청명한 날 하루에 연평균  $5.41 \text{ kWh/m}^2$  정도의 일사에너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계절별로는 연중(年中) 여름철의 법선면 직달일사조건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겨울철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 평균치에 대한 각 계절별 법선면 직달일사량의 비율은 봄과 여름철이 각각 2%, 8% 높았고, 가을철과 겨울철은 각각 연 평균치에 비해 2%, 9%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동안 수평면 전일사량의 계절별 변동추이 역시 법선면 직달일사량과 유사한 분포경향을 보였다. 또한 수평면 전일사량에 대한 법선면 직달일사량의 비는 연중 겨울철이 158%로 가장 높게, 여름철이 8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우리나라 주요 16개 지역에서 측정된 지역별 법선면 직달일사량의 연 평균치를 분석한 결과, 하루에  $5.6 \text{ kWh/m}^2$  이상의 법선면 직달일사량을 받는 비교적 큰 지역은 광주-진주를 잇는 남원분지 및 진주분지 일대와 대전-청주를 잇는 대전분지, 그리고 역시 분지지대인 춘천-원주-영주-포항을 잇는 일대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대전지역은 하루에  $6.0 \text{ kWh/m}^2$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법선면 직달일사량이 비교적 낮은 하루에  $4.4 \sim 4.8 \text{ kWh/m}^2$ 인 지역은 수도권지역인 서울과 대도시지역인 대구, 해안지역인 서산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4.0 \text{ kWh/m}^2$  정도로 매우 작은 지역은 역시 해안지역인 목포로 나타났다.

4) 계절별로 분포특징을 분석한 결과, 봄철의 일사조건은 광주-대전-영주지역 일원을 잇는 분지지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대도시지역인 서울, 대구와 해안지역인 목포 일원은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여름철은 광주와 대전-청주-원주-춘천을 잇는 중부이북지방과 제주지방 일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대도시지역인 서울과 부산, 대구, 그리고 해안지역인 서산, 목포지방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가을철은 전주-대전-청주-원주-춘천을 잇는 분지지대 일원에서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대도시지역인 서울, 대구, 부산과 해안

지역인 서산, 목포, 제주지방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겨울철은 대전 및 영주분지와 진주-부산-포항을 잇는 일원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서산-서울-원주를 잇는 일원과 목포-제주를 잇는 일원은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측정기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 지역에 대한 정확한 법선면 직달일사량 자원을 평가한다는 것은 아직 어려운 설정이다. 또한 앞으로는 본 연구사업을 바탕으로 고도나 대기오염도 등의 변화에 따른 일사량의 변동형태 등, 대기조건과의 연관성도 규명해 나아갈 계획이다.

#### 후 기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의 연구비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References

- [1] Lunde P.J., Solar Thermal Engineering, John Wiley & Sons New York, 1980.
- [2] Duffie John A., and Beckman William A., Solar Engineering of Thermal Process, John Wiley & Sons, Inc., 1991.
- [3] NREL, Solar Radiation Data Manual for Flat-Plate and Concentrating Collectors, DE 93018229, 1994.
- [4] 기상청, “기상년·월보”, 1982 ~ 2004.